

아름다운 화장실의 설계 방향

I. 머리말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이야 용변만 보면 되지 무슨 문화적 공간이나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 비판했지만, 지금은 문화가 있는 화장실을 앞서 시도한 곳에 대해 폭발적인 지지를 보내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일단 이용을 해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찬사를 보냅니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화장실, 철도청역사 공중화장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중화장실, 수원시 공중화장실, 서울의 송파구 공중화장실, 부산의 북구 공중화장실 등은 모범이 되는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김천시, 김해시, 동해시, 전주시, 서귀포시, 천안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가 있는 공중화장실을 꾸미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실 문화에 대한 개념은 국내 뿐 아니라 환경 문화 선진국에서도 관심을 두어 30여 개국에서 앞다투어 소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언어소통 불편, 교통혼잡 문제와 함께 외래 관광객들에게 한국방문의 3대 불편요소로 지적된 『불결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이미지 개선과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로 2003년에는 외래관광객 700만 명을 유치하여 120억불의 수익을 낼 수 있는 21세기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의 설계자료집을 만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간 전국화장실을 대상으로 한 상을 수상한 화장실을 정리해보자는 데 있고 둘째는 아름다운 화장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유들을 알고 싶었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화장실의 설계를 공유함으로써 차후 화장실의 설계의 기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수상을 한 화장실의 설계 개념을 보면 제일 먼저 주변의 자연 환경과 화장실 이용자들이 대한 편리함을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껏 건물의 한 모퉁이에 또는 공원의 구석진 곳에 있거나 하면 되었던 화장실을 전면으로 끄집어내면서 기존 건물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최대한 써비스 공간으로 개념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화장실 설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공공성을 띤 다중이용

시설이라 할 수 있는 터미널 (버스, 지하철, 기차, 선박 등)의 화장실이 특히 이러한 변화된 개념과 접목된 것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선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관광지 및 공원(설악산, 제주도 만장굴 등)의 화장실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나아가 그 지역의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삼았다는 것은 화장실의 설치 목적을 한 차원 높이 고려했다는 점에서 귀감이 된다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화장실을 문화 복지 환경이라는 세가지 테마를 가진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 화장실에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야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아름다운 화장실은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단순한 생리적 배설문제를 해결하는 시설이라는 기존관념을 뛰어넘어 위생적이고 또 다른 인간의 욕구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갖춘 공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적 공간으로 꾸미자는 생각은 화장실이 지역의 중요한 공간요소라는 생각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아름다운 화장실들은 이 모든 요소를 갖추었고 지역의 특성을 소개하는 공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지역의 특성을 업 그레이트 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은 휴지, 비누, 수건 등 3개 비품과 세면대, 거울, 수도, 짐받이, 옷걸이 등 5개 시설은 기본적으로 비치 및 설치하고 음향시설, 책꽂이, 사진 그림 명시 명언, 꽃과 방향제 등을 설치하여 사색과 감상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꾸며놓은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시설 면을 살펴보면 먼저 모든 화장실이 장애인시설을 갖추고 있고 어린이 및 유아를 위한 시설들을 구비하였으며 여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999년 서울시 공원의 공중화장실과 2000년 월드컵 개최10개도시 공중화장실의 실태와 비교해 볼 때 그 차이는 확연히 나타납니다 (표1참조) 특징적인 것은 서양식변기와 동양식변기 비율이 아름다운 화장실이 82 : 18로 서양식변기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껏 공중화장실은 동양식변기가 위생적이라는 이유로 더 많이 설치하였지만 아름다운 화장실은 편리성을 우선으로 하고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모든 화장실에 관리인이 지정되어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남녀 대변기 비율을 3 : 8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별도로 설치한 곳이 40%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1) 화장실 비교

	장애인화장실	남녀대변기비율	서양식 : 동양식비율	비 고
99년 서울시 공원화장실	32%	1 : 1.13	31 : 69	서울시공중화장실관리 및 시설향상방안 연구 1999
00년 월드컵개최도시 화장실	39%	1 : 1.27	47 : 53	월드컵개최 10개 도시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보고서
아름다운 화장실	100%	1 : 1.88	82 : 18	

이것은 공간의 제약도 있겠지만 활용성문제도 많이 고려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애인 화장실을 다목적 화장실로 명칭 및 용도를 변경하기를 제안합니다.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말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한다는 의미이다’ 라는 한 장애인단체의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시설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란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화장실에 다용도화장실 개념을 도입하여 유아동반 여성이나 노약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깊이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을 하나의 건축물로 인정하고 그것을 설계하기 위한 원리와 방법을 올바르게 터득해야 할 것이며, 화장실을 계획 및 설계할 때에 필요한 지식과 참고 자료 등에 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II. 신축계획을 위한 기본 작업

1. 위치선정

화장실 신축의 기본은 통행량이 많고 찾기 쉬우며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장실이 신축될 장소의 주변환경을 파악하고 그 주변환경과 계획하는 화장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주위경관 및 기존의 건물이미지를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역 주민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화장실이 자리하는 대지(垆地)에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접근에 대한 고려는 필수이며, 일반인의 경우도 대지와 건물 주위에 고저차가 있으면 경사도 또는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 접근 및 화장실의 안과 밖의 연결에도 문제가 없도록 한다.

2. 주변 현황 및 대지 분석

계획하는 화장실의 계절 및 요일별, 시간별 통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예상 이용자 수를 가정하고, 화장실 규모 및 적정 변기 수 등 향후 운영방침 등을 세우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는 등산로, 공원, 문화재 지역 등은 상하수관 및 전기시설 등의

인입에 대비한 주변 현황 파악과 함께 화장실 특성상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히 도심지의 경우 상·하수도관, 통신관, 가스관, 지하철구조물 등 지하매설물의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다

3. 복합기능을 갖는 화장실

화장실의 역할뿐만 아니라 위치에 따라 관광안내소, 만남의 장소, 매점, 휴식공간 등의 공익시설을 접목시켜 활성화된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여건과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복합기능의 화장실이 좀 더 친숙하고 유지관리가 잘 되는 또 다른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III. 공간별 설계요소

1. 진입공간(입구 및 통로)

남녀 화장실의 입구는 별도로 설치하여 남녀가 마주치지 않으며 여유있고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한다. 입구에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통로 벽에는 노약자를 고려하여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2. 바닥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평하면서도 경사를 두어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될 수 있으면 바닥 재료의 이음이 없거나 이음에 때가 타지 않게 하고, 부득이 타일인 경우에는 표면이 미끄럽지 않으며 가능하면 큰 규격의 타일이 바람직하며 작은 경우 틈새에 냄새와 때가 더 많이 끼게 된다. 청소를 할 경우 가능하면 물걸레가 아닌 마른걸레로 청소를 한다.

3. 화장실 부스

공간 폭이나 천장 고는 가급적 넓고 높게 하여 폐쇄감을 없애도록 하고 천창이나 고창을 두어 자연 채광 및 공기의 대류현상을 도와 자연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 상쾌한 공간을 형성하도록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벽 전체를 유리로 한다거나 천창을 계획하고자 할 경우는 외부에 시각 차단 차폐울타리나 가벽을 설치한다든가 불투명 유리 또는 유리 블럭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소에 따라서 대변기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문을 옆으로 내야 한다든지 평면 계획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유리로 하는 경우 야간에 실내·외의 명암 차이로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스의 크기는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는 동양식 85×115cm, 서양식 85×130cm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1m×1.35m 이상으로 계획하여 책이나 신문을 여유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며, 각 부스 내 개별조명을 하여 분위기나 최소한 신문을 읽을 정도의 필요 조도(100lux이상)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좋다.

부스 중 한 개 이상에 유모차를 끌고 들어가 사용하거나 기저귀교환대 및 아기의자나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를 배려해야 한다.

부스내부 구성에 있어 기본적인 악세서리 외에 코트나 소지품을 둘 수 있는 옷걸이 및 선반이 계획되어야 한다.

4. 소변기 영역

소변기 영역도 화장실 부스 영역과 구획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부스와 소변기 영역, 소변기와 소변기간의 간격을 충분히 해야 소변을 보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즉 소변을 보는 사람 외에 두 사람이 교차할 수 있도록 소변기 설치 벽에서 화장실 부스 출입구까지는 1.8m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장소가 허락하거나 차폐식재 및 차폐울타리 등을 계획하면 외부조망이 가능하도록 소변기 상부를 개방하여 더욱 상쾌한 배설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불가능하면 차선택으로 감상할 수 있는 그림, 사진, 꽃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소변기는 바닥형과 벽걸이형이 있는데 벽걸이형은 바닥 청소에는 유리한 반면 어린이 사용이 불편하여 어린이용을 따로 고려해 주어야 하며, 소변기 칸막이 설치도 안정된 배설공간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5. 세면대 공간

거울은 용변을 보는 모습이 비치지 않도록 부착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세면기는 카운터에 설치되는 원형세면기가 이상적이며 고정안정성도 높다.

중요한 것은 물이 나오는 수전(수도꼭지)의 선택문제인데 과거 고무패킹을 사용한 수전이나 현재 주거용으로 일반화된 싱글레버식(원터치식) 수전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용으로는 내구성이나 절수 측면에서 불리하다. 인간 본능의 위생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감지되는 동안만 물이 나오는 절수효과가 탁월한 전자감지식 자동수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누는 가능하면 물 비누통에 들어있는 액체 비누가 좋으며, 젖은 손을 말려주는 기구는 위생적이고 산뜻한 분위기를 위해서는 페이퍼 타올이 좋지만 반영구적인 사용으로 환경 예방 및 쓰레기 발생을 줄인다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핸드 드라이기 사용도 권할 만하다.

6. 파우더 공간

파우더 공간은 간단히 화장을 고치거나 옷맵시를 바로잡는 곳으로 특히 여자 화장실에 중요한 부분으로 여유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세면대 외에 소지품을 올려놓고 화장을 고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화장대가 있는 것이 좋다. 계획상 여유가 있다면 세면대와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분위기 있는 공간 구성을 위하여 마감 및 조명, 채광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별도의 아기를 돌보는 공간이 없으면 아기 기저귀 교환대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화장실 부스 영역과 파우더 공간은 별도 구획이 바람직하며 방향제, 그림, 꽃 등의 장식물로 더욱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

는 공간이다.

7. 다목적 화장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큰짐을 든 사람, 옷을 갈아입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한 상태의 이용자를 위한 화장실로 일반 화장실의 사용이 불편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화장실을 말한다.

아직 용어 정리가 명확하지 않아 여론을 수렴 중에 있지만, 취지는 기존의 장애인 화장실이 투자된 비용과 비교하여 활용도가 적고 오히려 장애인들로부터 기피대상이 되어 장애인 전용이 아니라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 공간 안에 장애인 편의시설, 휴게용 의자, 어린이용 세면기, 기저귀 교환대 등을 갖추어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질도 스테인레스와 같은 차가운 금속 보다 목재나 프라스틱 등 감촉을 고려한 재질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기존 화장실의 경우 간혹 남녀공용을 볼 수 있으나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로 남녀 각각 따로 계획하여야 한다. 진입은 일반 화장실의 영역을 통하지 않고 바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설치자는 준공 전에 휠체어를 타고 한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내부 시설은 훌륭하지만,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 화장실이 의외로 많다.)

8. 자원절약형 기기사용

대변기의 물저장탱크의 용량이 적은 제품(6~8ℓ)과 자동수전(50%절수효과) 에티켓벨(100%절수효과) 등을 지정하여 초기의 시설비용이 들더라도 수자원의 절약과 장기적인 유지관리비의 절약을 위해 설계단계에서 고려가 필요하고 급수에 필요한 최저수압(0.7kg/cm²)과 최고수압(7.0kg/cm²)의 조건에 적합한 급수설비가 이루어져야 설치된 모든 위생기구들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9. 청소 도구함

걸레를 빨기 위한 시설인 수채는 청소 도구함이나 비품창고와 가까이 배치하여야 편리하고, 청소도구나 비품을 보관하는 도구함을 별도로 확보하여 장애인 화장실을 창고로 전용해 사용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0 PIT의 설치

지하에 설치되는 정화조 시설은 1일 처리용량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하고 지하에 PIT를 설치하여 배관을 수리하게 될 경우 바닥재를 모두 뜯어내는 일이 없이 위생배관의 수리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그 깊이는 1.5M 이상을 권장하고, 실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점검구를 만들고 점검구는 철재 뚜껑을 설치한다.

11 난방 계획

화장실의 난방은 겨울철 동파방지 및 대기순환에 의한 악취제거를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로 대부분의 화장실이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대류난방이 주류를 이룬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옛부터 우리가 사용해 오고있는 온돌의 응용형태인 온수 바닥난방이 바닥의 물기 및 악취제거를 가능하게 하므로 가장 효과적인 난방 방식이라는 의견

이 많으며, 온수를 제공하는 가열형태로는 기름 보일러, 심야전기 사용, 태양전지 시스템 등이 일반적으로 초기의 설치비용이 적으면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높아져 적절한 장치를 선택해야 한다.

환기계획은 습기와 악취제거라고 하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 자연환기와 기계환기 방식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어느 것이나 화장실의 환기계획 수법으로 유효하지만 쾌적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대부분 기계환기 방식(Fan설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2 편의시설과 장치

1) 휴지

가능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대형 휴지나 이중 휴지걸이를 사용하는 것이 관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최근에는 휴지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한 장씩 뽑아쓸 수 있는 벌크팩 화장지를 많이 사용한다

2) 옷걸이 및 선반

적당한 위치에 옷이나 가방을 걸 수 있는 걸이를 설치하고, 걸 수 없는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선반을 설치하여 불편함을 없앤다..

3) 에티켓 벨

여성들이 용변시 나는 소리를 감추기 위해 변기의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에서 착안한 기구로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오는 듯한 음향이 들려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절수를 위한 여성화장실의 필수기구이다.

음량조절이 가능하고 방향제 및 소취제를 넣을 수 있는 용기로 되어있으며, 일반 건전지로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없다.

4) 위생시트

자동 및 반자동 장치가 있으며 작동을 하면 위생처리된 비닐이 깔고 앉을 시트를 한 바퀴 감싸주어 사용자로 하여금 비접촉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위생시트와 비슷한 용도로 종이로 된 시트카바와 휘발성이 강한 약품으로 시트카바를 소독 및 세척해주는 제품, 물로 시트를 세척해 주는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

5) 비데

용변 후에 앉은 상태에서 물로 씻고 바람으로 말려주는 최첨단 화장실 용품으로 마사지 기능, 온도조절, 수압 및 위치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6) 사용 중 인식장치

대변기 사용 중 밖에서 노크할 필요없이 사용자가 안에서 문을 잠그면 사용중 표시 장치에 불이 켜지도록 한 것으로, 특히 청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장치이다.

7) 휴지통

사용한 화장지를 휴지통에 버리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가

정에서도 악취의 원인이 된다. 현재 휴지는 물에 잘 녹아 변기 속에 오물과 함께 배출하고, 뚜껑이 있는 휴지통을 준비하여 생리대 포장지나 비닐 등 물에 녹지않는 것들만 담아야 한다.(단, 여성 화장품용 휴지는 물에 녹지않아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8) 재떨이

쾌적한 실내공기 유지를 위해서는 화장실 내에서 금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떨이가 없을 경우 주변이 더러워 질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에는 계도와 함께 부스내의 청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여성의 흡연인구가 늘어가는 것을 감안하여 여성 화장실에 흡연실을 별도로 시설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9) 비상호출 버튼

노약자나 임산부 같이 위급한 상황을 당하는 경우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비상벨을 설치한다.

10) 유아용품

어린 자녀와 동반한 경우를 대비하여 모자(母子) 또는 부녀(父女)가 같은 공간에서 용변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고, 선진 화장실에는 남자 화장실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유아의 기저귀를 갈거나 우유를 먹이기 위하여 잠시 눕혀 놓을 수 있는 유아용 (침대), 유아와 동반하여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 잠시 앉혀놓고 용변을 볼 수 있는 유아용 의자는 유아와 눈높이를 맞추며 용변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11) 화장실 소품

음향시설과 꽃·화분·그림 사진 명시 명언 등 소품도 주변 환경이나 화장실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12) 창문과 출입구

특히 산이나 바닷가 주변의 야외 화장실에는 여름철에 창문과 출입구를 통해 모기 파리 등 벌레들이 날아 들어와서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출입문에도 방충망을 댈 이중 덧문을 달아 놓는다.

IV. 주변 환경과 마무리

화장실을 선진화한다는 목적으로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비싼 수입 대리석 사용, 해변이나 산악지대에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것은 자연환경과의 조화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주변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나 유사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반짝이는 재료나 백색은 조류의 경계심을 유발시켜 생활터전을 망칠 위험성이 크므로 자연공원에서는 자연의 색조와 유사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완성된 화장실에는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안내표지판을 적절하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내 표지를 설치할 때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고 국제적인

표준 픽토그램(Pictogram)과 용어인 Toilet, 화장실을 병용하여 표기하는 것은 국제화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화장실관련픽토그램 KS A0901/협회자료실참조)

V. 맺음말

먹는 것이 중요하다면 배설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름다운 화장실이란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생활에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면 배설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주변의 환경은 어떠하든지 먹는다는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다 품위있는 공간, 보다 문화적인 공간에서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식당도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어 식사공간을 꾸미는데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화장실도 당연히 생리적 해결을 위한 공간을 뛰어넘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보다 편리하고, 보다 위생적이고, 보다 편안한 공간에서 생리적 해결을 하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사회에는 화장실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청결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시각과 그렇지 않고 보다 품격있는 공간으로 꾸며져야 한다는 두 시각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을 대변한다는 생각에서 일간지의 독자투고란에 게재된 의견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분수 넘치는 화장실 치장

얼마 전 구청에 볼 일이 갔다가 화장실을 들렀는데 깜짝 놀랐다. 화사한 조명과 그림, 화려한 바닥재와 목재, 게다가 은은한 향수...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화장실이었다. 화장실이 깔끔하고 깨끗해 기분은 좋았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화려하게 치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알고 보니 서울시에서 우수화장실로 뽑혀 상까지 받은 곳이라고 한다.

요즘 많은 지하철역에서 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말이 개보수지 실제로는 멀쩡한 화장실을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시공하는 경우도 많다. 화장실이 깔끔한 것도 물론 좋지만, 지나친 외관치장을 위해 혈세가 낭비되는 것 같다. IMF위기 전에 어느 재벌회사가 화장실을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알고 있다. 직원들이 깔끔한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 회사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 작은 일에서 허세를 부리는 것이 큰 위기를 부르는 원인이 된다. 화장실은 깨끗하면된다. 화려할 필요까지는 없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한다.

(이상원 27·자영업·서울 광진구)

'화장실 시설' 더 좋아져야...

16일자 오피니언면에 실린 '분수넘치는 화장실 치장' 을 읽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투고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부분이 화장실 문화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면서 서둘러 화장실문화를 고쳐야 할 때다. 투고자는 화장실에 화사한 조명과 그림이 있는 것이 지나치다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화장실이니까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자들에게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단지 용변만 보는 곳은 아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곳이다.

얼마전 새로 개보수한 지하철 화장실을 가서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전에는 전철역 화장실이라면 허름하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내 집처럼 편안했다. 그래서인지 요즘엔 공공 화장실에 가면 무작정 문앞에서 기다리는게 아니라 선진국처럼 한줄로 서서 기다리는 것을 종종 보게된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이런 곳에 써야한다고 본다. 이런 작은 곳부터 조금씩 고쳐가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리라 믿는다

(백하순 39.주부.경기 의정부시)

- 2000년 “아름다운화장실설계자료집” 발취